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5월 11일 (제741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주일에배 7시30분  
수요일 (1부)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봉 우 칼럼

## 취소와 연기는 다르다

5월 20일 오후 3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산상집회 전,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한 협조요청을 받았다. 서울광장에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한 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이니 양해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요청을 받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한 일일진대, 국가의 요청에 내 주장만 해서 안 된다고, 더욱이 이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일에 대한 국민으로서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다만 내가 염려하는 것은 행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취소하시는 거야?', '혹시 서울시의 허락이 없었던 거 아니?' 믿음이 떨어지면 오히려 악성종양이 독버섯처럼 자란다. 부정적인 생각은 곧 악성종양이다. 악성종양이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듯, 부정적인 생각 또한 사람을 죽이고 말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집회가 취소되었음을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취소란 그 일에 가치가 상실되어 그 일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지만, 연기란 그 가치가 여전히나 다만 여건상 잠시 뒤로 미루는 것으로 분명히 다르다. 30년 묵혀 하는 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다. 또한 1992년 메인스타디움 집회도 잠시 늦추셔서 더 완벽한 집회를 가진 경험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번에도 연기하는 덕분에 더 기도하고, 더 완벽히 준비하여 마침내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회가 되리라 믿는다.

## 바보들은 매일 결심만 한다

사실 이번 춘계산상집회부터 장성 에루 살렘기도원을 절식기도원으로 명하고, 점심 한 끼 식사와 저녁은 빵과 우유 및 과일로 대체할 생각이었다. 인색해서가 아니다. 기도원에서 종사하는 식구가 너무 적어서 일을 감당하기 벅찼기 때문이다. 집회 첫날 저녁식사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이 선포한 대로 빵과 우유, 바나나를 성도들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집회 참석자의 70%가 밥을 먹기를 원했고, 이 말이 총회장 목사님의 귀에 들렸다. 총회장 목사님은 단에 오르자마자 웃으시며 "그렇게 밥이 좋아요? 그럼 밥 드물게요. 아까워서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기

다. 아무리 구슬이 서 말 있으면 뭐 합니까? 폐여야 보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약2:17)'이라 한 것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정보도 술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정보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건강해지고,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실천할 때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에너지로 다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저는 성경을 백독했다 사람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왜 그랬

다. '이건 귀신이고, 저건 귀신이 아니' 이리저리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쫓으십시오. 그러면 총합이 나가서 짐승을 쫓고 죽이듯 예수 이름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험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편히 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마귀들의 크리스천을 공략하기 위한 최대 전략은 '내일하게 하자'입니다. '기도해라. 단,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라. 봉사도, 구제도 하긴 하되 내일부터 해라.' 이겁니다.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즉시 실천합니다. 바보가



2014 춘계산상집회(4월 28일 ~ 5월 1일)

도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 건데 성도들이 원하면 드려야죠. 잠깐 드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의 말씀을 잊게 한 철학, 끝나의 형편보다 먼저 양떼를 살피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이것이라. 목사님은 셋째 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결실을 맺는 겁니다. 밤새 기와집을 몇 채 지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스위치를 울리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고, 부두막에 소금도 음식에 넣어야 그 맛이 나는 겁니다.

을까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물을 야구까지 채우고 그것을 손님에게 떠다주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를 칠일 동안 일곱 바퀴 돌고 외칠 때 무너졌고,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려면 쫓아야 합니

되지 마십시오. 배움의 끝은 실천 아닙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집회 둘째 날, 목사님의 해외탐원인 한은택 전도사의 간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아르헨티나에서 여권을 잃어버려서 고생한 이야기였는데, 그는 다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미국 대사관을 7바퀴 돌고,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합력투야를 외쳤다고 한다. 그랬더니 돕는 자를 만나 재발급이 어려운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 아니겠는가. 이번 춘계산상집회는 확실한 영적 리콜(recall)기간이었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한다



귀신이 떠난 후 허리 보조대를 끌고 기뻐한다



단상에 올라온 모든 환자들을 안수하시는 목사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9:27)

#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사람의 육체는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기가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기쁨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소나 과일을 주로 먹으면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하게 됩니다. 즉 '먹는 것이 내 육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요? 영혼은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내 영혼을 형성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들으면 영적인 영혼이 되고, 육적인 것을 보고 들으면 육적인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보고 듣는 것이 내 영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이 말씀은 믿음의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일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할까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찌니라"(잠19:27).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말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저명인사나 지식인, 혹은 연예인들처럼 좀 배우고, 좀 잘난 사람들의 말에 공작 현혹되어 휩쓸리곤 합니다. 합당한 말이야 괜찮지만, 그네

어 잡혀갔을 때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라는 젊은 청년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영욕한 고로 느브갓네살이 그들을 바벨론 도에 지방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느브갓네살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브갓네살이 자기 모습을 닮은 금신상을 두라평야에 세웠습니다. 이 낙성식에 지도급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제 음악이 연주되면 모든 참석자들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버린다고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

습니다. 모든 자들이 음악이 시작되자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자 고개를 쳐박고 금신상에 절을 했

습니다. 행여 죽을까 봐서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브갓네살은 그런 그들이 껄뻘하여 풀무불을 칠 배가 뜨겁게 하며,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며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6-18).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건지셨고, 더욱 높이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시절,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이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음모를 꾸밈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번개치 못하도록 어인도 찍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었고,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던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코자 했으나 어인을 찍었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그레소 왕 때까지 행통케 하셨습니다(단6).

요도 불까요? 욕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고 몸에 악창까지 났을 때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레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2:9). 욕의 상황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아내를 호되게 야단치며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욕이 받은 축복은 욕기서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신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당신이 당할 일들에 대해 설명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

리이다"(마16:22)라고 하자 좀 전에 그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돌변하여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마16:23)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신을 넘어트리는 말을 하는 자가 당신에게 은혜를 끼친 자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더 흔들리고,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하지만, 신앙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도, 타협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말은 영혼의 독초와 같습니다. 자고로 독초는 아릅답습니다. 보암직하고, 들음직하지요. 마귀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할 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전4:6)고 했고, 더 붙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고후2:17)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제가 교단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처럼 눈물인 산야요, 물 없는 사막 같은 길은 걷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더딘 것 같았지만, 풀이켜 보건대 그것이 가장 청정(淸淨)이요, 정도(正道)임을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인이나 지혜자의 말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순리에 불과합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는 말에는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이 무어라고 하셨나, 예수님이 무어라고 하셨는가에 귀를 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이로 인하여 법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나

들이 대통령이요, 왕이요, 박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말이 나 이르면 파르르 떠날 겁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는 몇 년 전에 영국의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냐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뇌가 깜빡 거리는 순간 이후에는 어떤 것도 없다." 또 그는 우주탄생에 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현대과학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는 대표적인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말에 일부 사람들이 동조하여 신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감동 글이라 올렸습니다::

## 보리밭기하시는 하나님

늦가을, 추수가 끝나면 농부는 다시 땅을 갈아엎는다. 그리고 새로이 보리를 파종한다. 보리는 그렇게 겨울을 온 몸으로 겪으며 자라간다. 북풍한설의 매서움 앞에 '정말 겨울을 날 수는 있을까?' 하라마는, 보리는 기어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

음력 정월 무렵이 되면 드센 한파도 한풀 꺾여 드디어 땅도 녹기 시작한다. 그러면 농부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보리의 새 순을 뽑아준다. 말 그대로 '보리밭기'다. 겨우내 공종인 땅이 녹기 시작하면 땅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때 보리 새 순도 덩달아 뜰뜨게 된다. 뿌리가 들뜬 상태라 제대로 양분을 공급받기 힘들다. 또 더러는 말라 죽기도 한다. 그래서 꺾꽂이해야 한다. 그래야 더 강한 새 순이 나와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실제로 그냥 두면 낱알이 100알가량 열린지만, 보리밭기를 해주면 무려 400알 가까이 열린다고 하니 뭐든 거저 되는 법은 없는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 참 묘묘한 자연의 섭리를 발견한다. 가을보리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찌된 영문인지 싹이 나질 않는다. 겨울을 버티어 내야 비로소 싹을 내고 열매를 낸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겨울을 지나 봄에 파종을 하려 하면 '춘화처리'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춘화처리'란 일정기간 냉장 보관하여 저온에 노출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처럼 속성으로라도 겨울을 맞보게 해야 보리도 제 구실을 한다.

놀랍지 않은가! 흑한을 이겨내야 하는 것

도, 폭설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것도, 겨우 싹 틔운 새 싹이 짓밟히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도 모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함이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나의 삶에 붙어 다닌 흑한이 싫다. 지금 나를 압박하는 삶의 문제들이 싫다. 우리 인생에 더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려고 보리밭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얼마간 감사하다가도 곧바로 학학거린다. 절규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다 결국엔 포기하고 자멸해버리기도 한다.

잠언 5장 26절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평탄한 길'은 단순히 '편안한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지름길'이란 뜻이다. 지름길은 곧게 뻗은 넓은 길이 아니다. 때론 좁고 험한 길, 남이 알지 못하는 가파른 길을 지나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지름길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6절을 통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가? 분명히 알자. 지금 당신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리밭기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인내로 결실하자.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내 것이 아닙니다

한 때는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웠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흑어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폭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게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를, 참으로 이쁜 그릇들... 못 팔리던 내 그릇 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하는 병실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 제가 황망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 것 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차 불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

과 제가 사랑해마지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는 병실에서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어디 그 뿐인가요? 이십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히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5:7).**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책임지기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된 자기애가 빛어낸 세월호 참사 때문에 흑독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가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연들은 도저히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고, 이에 반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관계자들의 행태,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른 무수한 해아림들이 쏟아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벗어날 수없는 부대낌이 있으니, 이 때때로는 어찌 지어져야 하는지... 주어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한 사코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몰입하는 수많은 아담과 사울 왕...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을 뿐이니 말입니다.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그 뛰어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놀라운 점은 서로를 향한 책임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들은 아이들에게 '체다카'라는 저금통(구제와 기부를 위한 용도)을 만들게 함으로써 나눔에 대한 책임을 습관화시킵니다. 또한 같은 유대인이 자기 사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3번은 조건 없이 힘껏 돕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고 합니다. 오후 일정시간이 되면 유대인 시장은 물건을 한쪽으로 떼어놓습니다. 팔다만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타임세일'이나 '반액세일'이 아닙니다. 물건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쥐면 기어이 따라가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책임지는 사람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책임지는 습관은 결국 블레셋과 골리앗을 향해 여호

와의 이름을 책임지는 자로 쓰임 받게 합니다.

책임회피나 책임전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늘어놓는 변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압박을 받으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사53:7).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요19:30)' 하셨습니다. 책임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집시다. 그것에 설령 세월호 사건에서와 같이 죽음과 맞바꾸는 것일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집시다.

예배자의 삶은 '책임지기'입니다.

하서연



### 귀를 기울이세요

미국의 제임스 화이트 목사가 몇 해 전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한 교회의 주일아침예배 설교를 부탁받았더니 설교자가 여러 명이었고, 예배는 거의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답니다. 그는 예배가 긴 것에도 놀랐지만 3시간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지루한 기색도 없어 보이는 교인들의 열의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 교회 목사님께 운을 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배가 한 시간이 넘으면 여기저기서 시계가 뿔뿔해집니다." 그러자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허용되지 않았고, 발각되면 모두 옥에 들어갔지요. 지금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날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할 수 없기에, 매 주일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자제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부러워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우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신학주 전도사

blessedm@naver.com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 사랑하는 목사님께

목사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인천 대학 청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목사님의 모습에 반한 저희가 목사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프로포즈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벗으로 삼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며, 사중일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뜨거운 눈물과 낙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대한민국만으로 부족하여  
전 세계에 예수님을 광고하기 위해, 복음의 사도로써 목적을 잃지 않고  
비좁은 기내 안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며  
수십 시간 이동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직 예수! 난 예수뿐이야! 예수를 사랑해!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의 발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 있음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식사 할 시간마저 아까워하시며, 예수님 증거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는 저희가 목사님의 그늘에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난 인물들이 되어  
목사님과 우리 교단을 지키겠습니다.

장엄한 이과수폭도의 물줄기가 낮은 곳을 향해 내리칠 때  
사람들이 상상 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발생하듯  
목사님의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 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늘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청년들 또한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며 예수중심 정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각 분야의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평화통일 기도성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던 아론과 훌처럼  
저희가 목사님의 두 팔을 거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펼쳐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목사님을 만나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인천 대학 · 청년부 일동 올림

## 교감(交感)의 비결

::Edu Section::

작년 9월, 망막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기로 작정했을 때였다. 안과전문으로 유명한 병원과 의사선생님들을 추천받아 찾아갔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진료 상담에도 나의 눈을 선풍 말길 수 있는 병원과 의사선생님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직장 근처에 있는 한 안과전문병원을 가게 되었다. 첫 방문에 병원의 분위기가 참으로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진료 대기를 하던 중에, 앞선 삼십대 남자 환자와 의사 선생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순간, '아! 이 선생님께는 나의 눈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그 선생님을 주치의로 모시게 되었다.

수술을 하는 날, 그 선생님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내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해주셨다. 책임감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선생님의 진심에 확신이 생긴 후로는 눈에 이상 징후가 생길라치면 여지없이 그분께 달려가서 내 눈에 관한 모든 것을 말기고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 의사를 믿고 자신의 소중한 신체의 일부를 의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환자를 향한 선생님들의 진심과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 교감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기본은 다름 아닌 상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다. 교감(交感).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감이다. 혹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회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여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

시 한 번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이 기본이 되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교감 없는 인간관계는 소비적이고 일시적이며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얻히고 싶진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개개인이 서로를 향해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랑과 진심에 기반을 둔 교감이야말로 인간관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 5월이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등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믿음과 사랑을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서로를 향한 교감의 시간을 만듦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더 성숙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오자유  
oh.free@hanmail.net

스승은 인격과 학식의 탁월함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사는 직업적으로 지도하는 직책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